

## .....▶ 이들에 만난 사람

●●● 이 소 풍 만화작가

**향상 순향하는 양계산업을 그리고 싶어요**

▲ 만평을 통해 25년간 양계인과 함께해온 이소풍 만화가

**O** | 소풍 씨가 양계업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80년대 초, 당시 남대문에 양계협회 사무실이 있었고 노영한(현 축산환경기계협회 부회장) 씨가 편집국장을 맡고 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월간여학생사 미술부에 근무하면서 왕성

본고는 지난 1980년 월간양계 5월호부터 약 24년여 동안 본지에 만화와 만평은 물론 소설속의 삽화 등을 그리며 양계인들과 희로애락을 같이해 온 이소풍(59) 만화가를 만나 월간양계 창간 35주년에 즈음하여 만화에 비친 양계업을 들어보았다.

- 편집자주 -

## ◀이소풍 1965 '크로비문고'에 "역세계 재수좋은 소년"

대뷔

- 월간여행사 미술부 근무
- 진선미 문고, 우주문화사 등 만화출판사에서 단행본 출판
- 여원, 여학생, 월간팝송, 월간양계 등에 만화, 삽화 게재

1985 만화영화사 (주)신원 근무

- 떠돌이 까치, 대털도사, 아마개돈 등 다수의 TV시리즈와 장편만화영화 원화 감독
- 한국만화가협회 협의위원 및 이사 역임
- 현 서울카툰 회원
- 유럽만화협회한국지부(ECOKOREA) 회원

1987 감사패(대한양계협회장상)

한 활동을 벌이고 있을 무렵 양계업을 만화와 만평을 통해 표현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고, 평소 계란과 닭고기를 좋아했던 이소풍 씨는 선뜻 허락을 하였다. 당시에도 양계업은 혐난했다. 도계법이 처음 시행되면서 사회적인 갈등을 겪고 있

었고, 이러한 사회 현상을 만평을 통해 배가 풍랑을 만난 격정적인 묘사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당시 군사정권 시절인지라 이 그림이 과격하다고 국가로부터 지적받기도 하였다.

이후 우루과이라운드, WTO출범, FTA, DDA협상,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 만평을 통해 시대적인 흐름을 최대한 그림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였고, 항상 시련을 맞으며 양계산업이 발전해 왔음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느끼며 양계인들과 함께 24년을 지내왔다. 만화는 가능하면 명랑만화 위주로 양계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설 속의 삽화는 소설에서 추구하는 표현을 리얼하게 표현하도록 노력하였다.

항상 순수하고 정겨운 웃음을 간직한 이소풍 씨는 고등학교까지 부산에서 미술부의 한 일원으로 동양화는 물론 만화 캐릭터를 그리는 재미에 끌려졌다. 1963년 크로바 문고의 이정민 선생으로부터 재능을 인정받아 1963년 만화에 입문하였으며, 이후 대뷔작인 '역세계 재수 좋은 소년'으로 세간에 인기를 끌게 되었다. 이소풍씨는 '공포의 외인 구단'으로 잘 알려진 이현세 만화가를 다른 문하



▲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이소풍 씨



생들과 함께 지도해 준바 있으며, 이것이 인연이 되어 장편 만화영화 '아마겟돈'의 원화감독을 맡으며,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기도 했다. 동화작가로 시작하여 만화영화 감독으로 활동하면서도 양계업에 항상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있다.

지난 1980년대 말에는 닭고기를 주제로 한 '즐거운 생일 파티'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어린이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닭고기 소비촉진에 기여한 바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87년에는 대한양계협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여받기도 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양계업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항상 양계인과 같은 심정으로 생활해 왔다는 이소풍 씨는 양계협회는 물론 업계에서 실시하는 홍보행사에 만화를 통해 많은 기여를 하고 싶다는 바램을 전달하고, 항상 '순풍에 듯 단듯' 순항하는 양계산업이 그림으로 전달될 수 있는 날을 기대하였다. (정리 | 김동진 팀장) 양계